

'분양 사기' 광주 자산동 주택조합 2차 피해 우려

은행측, 조합에 160억원 브릿지 대출 상환 연장 불가 통보 조합원 1인당 1억3000만~1억8000만원 추가분담금 불가피 사기 피해자-조합측 보상률 간극도 커 사업 추진 '척척산중'

광주 자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도 사기 분양의 피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의 조속한 진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조합측이 제 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손해액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81억 원을 빼앗긴 사기 분양 피해자들에 이어 조

합원들도 1인당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자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측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금은 조합측이 토지 매입, 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 형태로 제 2 금융권에서 빌린 것이다. 브릿지대출은

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임시방편 자금대출'로, 대출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평균 8% 가량)가 비싸다.

조합측은 사실상 대출금을 상환 기일까지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다. 애초 조합은 조합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한 중도금으로 '브릿지 대출'을 갚아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분양 사기 사건으로 은행측이 조합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면서 자금 상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5년마다 진행되는 저축은행 감사를 통해 자산주택조합의 분양사기 발생 사실을 지적하면서 주택은행측의 대

출 상환기일 연장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조합의 향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하고 조합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조합원들이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지만 이미 조합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조합원들이 섣불리 내놓을 지 의외적이다.

부담해야 할 금액도 수억원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애초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 84㎡(34평형) 기준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분양 사기 사건으로 1인당 1억 3000~1억8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조합측 설명으로, 3.3㎡당 1250만원 수준(84㎡ 기준 4억 2000만원)이라 일반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조합 대행사측은 현재 시공사인 한양건설 대신, 한국건설로 시공사를 바꾸고 대상지 인근의 교통·환경 등을 강조하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분양·건설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대행사측은 또 기존 413명의 조합원 중 340명만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70여명의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하단, 이들을 통해 분담금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 분양사기 피해자 합의금 마련, 손해배상,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 시각이다.

특히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피해 보상 규모가 70%로 조합측 의견과 차이가 커 합의가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판례상 최대 3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에도 어려움이 커 합의를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직무 배제는 결정 안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 공정성 우려를 고려한 직무 배제 등 법무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검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으로,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오후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경찰이 고객의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확보한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수긍 못합니다"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형량 높여 "1심 판결은 피해자 과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꼼꼼한 양형 판단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밤, 나주시 금천면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갓길을 건너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하고 그대

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다"면서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경찰관 정차 요구를 받고서 한 번 더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갓길 통행이 금지됐지만 A씨가 갓길을 침범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을 반영,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 휠 고의 훼손' 타이어매장 압수수색

광주서부경찰, 잇단 피해 진정에 본격 수사...추가 범행 드러날지 관심

경찰이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타이어 수리매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것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피해를 봤다는 진정이 잇따르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광주시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고의 훼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1일 해당 매장이 자신의 자동차 휠을 일부러 훼손했다는 A씨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옛매장에 매장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장부, 신용카드 매출

전표,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매장 대표를 사기미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정식 고소 외에도 해당 매장에서 비슷한 방식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신고만 10건 넘게 들어온 점에 주목, 고의 훼손 여부와 상습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매장 대표는 경찰 압수수색 뒤 현장에서 "이전에도 휠을 훼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타이어뱅크 상무점의 자동차 휠 고의 훼손 의혹은 A씨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공구로 자동차 휠을 망가뜨린 장면을 목격한 뒤 관련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급격히 퍼져나갔다.

누리꾼들이 파나르는 영상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온라인상에 화제가 됐고 분사측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비슷한 피해신고가 잇따르면서 다음달부터 5개 자치구 등과 지역 내 자동차 정비업체(1316곳) 및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독립운동가이자 5·18유공자 김용근 선생 기념 학술대회 29일 국립광주박물관

독립운동가이자 5·18유공자인 석은 김용근(1917-1985) 선생의 삶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김 선생의 참전유공자 추서도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흔치 않은 3개 분야(독립·참전·민중) 유공자로 인정받을 지 주목된다.

27일 '사단법인 김용근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사업회는 오는 29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석은 김용근선생의 일제하 민족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는 임선태 전남대 교수, 조현종 전 국립광주박물관장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김용근 선생의 삶·교육방식·교육철학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1917년 강진에서 출생한 김용근 선생은 평양숭실학교와 연희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37년과 1943년 일제에 의해 치안유지법 및 육군형법위반죄로 2차례 옥고를 치렀으며, 출근 사상범으로 요시찰의 대상이었다. 숭실학교 재학시절에는 종교부장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 후에는 정의감에 기초하여 애국 계몽운동과 민족의 독립운동을 선구적으로 실천하여 1987년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윤한봉과 정용화 등을 숨겨줘 범인 은닉죄로 계엄사에 체포돼 고초를 겪은 점 등으로 2002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추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